

제공일자	2014. 5. 7(수)	담당자	전용식 연구위원
홍보담당	변철성 수석(3775-9115)	연락처	3775-9035
			총1매

제목: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

국내 은행의 자산 규모는 경제규모에 비해 크지만 수익창출 능력은 취약 규모 확대보다 리스크 평가능력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강 호)의 전용식 연구위원은 『세계 100대 은행과 국내 은행의 수익성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보험동향 2014년 봄호)를 작성하였다. 2011년 해외 대형플랜트 수주실패 이후 우리나라 경제규모(세계 15위)에 부합하는 은행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 은행의 경제규모 대비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뱅커지 선정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대형은행들의 GDP대비 총자산 비중은 1.38배로 100대 은행 평균 1.41과 유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대형은행들의 총자산 대비 해외자산 비중은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4.3%에 불과하여 수익의 국내 시장 의존도가 크다. 그러나 수익성의 경우,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된 국내 대형은행들과 규모 및 사업구조가 유사한 해외 은행들의 자산 수익률(ROA)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0.68%로 캐나다 1.08%, 싱가포르 1.36%, 미국 1.26%, 스웨덴 1.00%에 비해 낮았다. 예대마진의 경우에도 우리나라 은행은 평균 2.27% 수준으로 미국 상업은행 평균 3.0%에 비해 0.73%p 낮았다. 이처럼 국내 대형은행이 규모에 비해 수익창출력이 낮고 국내 시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금융의 핵심 역량인 리스크 평가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은 은행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리스크 평가능력 제고를 통해 이자 및 비이자 수익을 적절히 확대해야 한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하에서 금융회사 경영의 전문성·자율성·일관성 등이 제고되어야 한다.